

박형준 / 2월+3월 / 도약GS / 1회										
반구분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실강+실영상반	509152	26	17	25	14	82	1	1.32%	7	76
실강+실영상반	514005	26	17	24	13	80	2	2.63%	7	
실강+실영상반	509117	25	13	24	14	76	3	3.95%	7	
실강+실영상반	509120	25	17	18	16	76	3	3.95%	7	
실강+실영상반	509127	22	12	25	15	74	5	6.58%	4	
온라인첨삭반	513761	24	12	22	16	74	5	6.58%	6	
실강+실영상반	509107	25	13	21	14	73	7	9.21%	5	
실강+실영상반	513526	24	14	20	15	73	7	9.21%	7	
실강+실영상반	513456	22	14	20	16	72	9	11.84%	4	
실강+실영상반	509153	21	13	21	15	70	10	13.16%	4	
실강+실영상반	513540	21	13	22	14	70	10	13.16%	4	
온라인첨삭반	513891	20	14	20	16	70	10	13.16%	5	
실강+실영상반	509122	21	14	19	15	69	13	17.11%	6	
실강+실영상반	513476	23	11	19	16	69	13	17.11%	5	
온라인첨삭반	513846	23	14	18	14	69	13	17.11%	7	
실강+실영상반	513607	20	12	21	15	68	16	21.05%	6	
온라인첨삭반	513444	20	12	20	16	68	16	21.05%	5	
온라인첨삭반	513465	20	12	20	16	68	16	21.05%	4	
실강+실영상반	513843	21	12	19	15	67	19	25.00%	5	
실강+실영상반	514023	19	13	21	14	67	19	25.00%	5	
온라인첨삭반	513839	20	13	20	14	67	19	25.00%	6	
실강+실영상반	513769	20	11	20	15	66	22	28.95%	5	
온라인첨삭반	514024	22	13	19	12	66	22	28.95%	6	
실강+실영상반	513719	20	9	22	14	65	24	31.58%	5	
실강+실영상반	513434	19	12	18	16	65	24	31.58%	6	
온라인첨삭반	513908	19	13	19	14	65	24	31.58%	4	
3월온첨반	516205	20	13	17	14	64	27	35.53%	5	
실강+실영상반	513481	25	16	8	14	63	28	36.84%	5	
온라인첨삭반	513790	19	12	19	13	63	28	36.84%	5	
실강+실영상반	513487	20	12	17	13	62	30	39.47%	6	
실강+실영상반	513494	19	14	18	11	62	30	39.47%	5	
실강+실영상반	513808	16	15	17	14	62	30	39.47%	5	
온라인첨삭반	514086	23	13	15	11	62	30	39.47%	5	
온라인첨삭반	514105	18	11	18	15	62	30	39.47%	5	
실강+실영상반	513448	19	13	18	11	61	35	46.05%	4	
실강+실영상반	513445	18	11	19	12	60	36	47.37%	4	
실강+실영상반	513620	21	13	14	12	60	36	47.37%	6	
실강+실영상반	513684	20	13	16	11	60	36	47.37%	4	
온라인첨삭반	513760	18	12	17	13	60	36	47.37%	6	
온라인첨삭반	514007	19	11	17	13	60	36	47.37%	4	
온라인첨삭반	514123	16	11	19	14	60	36	47.37%	4	
실강+실영상반	509387	18	14	16	11	59	42	55.26%	5	
실강+실영상반	509171	18	12	16	12	58	43	56.58%	4	
실강+실영상반	513503	18	11	15	14	58	43	56.58%	5	
온라인첨삭반	513763	24	12	12	10	58	43	56.58%	6	
실강+실영상반	509377	17	12	14	14	57	46	60.53%	5	
온라인첨삭반	514090	19	10	16	12	57	46	60.53%	4	
3월온첨반	516021	19	13	13	12	57	46	60.53%	5	
온라인첨삭반	513714	18	10	15	13	56	49	64.47%	4	
실강+실영상반	508888	17	12	14	11	54	50	65.79%	5	
실강+실영상반	513439	16	10	17	11	54	50	65.79%	4	
실강+실영상반	513452	17	9	17	11	54	50	65.79%	4	
실강+실영상반	513617	17	10	16	11	54	50	65.79%	4	
온라인첨삭반	513805	17	12	15	10	54	50	65.79%	5	
실강+실영상반	513602	15	10	15	13	53	55	72.37%	4	
실강+실영상반	513748	17	11	16	9	53	55	72.37%	3	
실강+실영상반	508482	17	12	12	11	52	57	75.00%	5	
실강+실영상반	513701	14	9	16	13	52	57	75.00%	3	
온라인첨삭반	514095	19	9	11	12	51	59	77.63%	5	
실강+실영상반	508885	20	13	15	2	50	60	78.95%	5	
온라인첨삭반	514093	16	11	13	10	50	60	78.95%	5	
실강+실영상반	508992	19	12	7	11	49	62	81.58%	4	
실강+실영상반	513438	15	10	14	9	48	63	82.89%	4	
실강+실영상반	513615	16	9	10	13	48	63	82.89%	3	
실강+실영상반	513630	15	10	12	11	48	63	82.89%	4	
온라인첨삭반	513845	15	11	9	13	48	63	82.89%	5	
온라인첨삭반	514068	16	13	10	9	48	63	82.89%	4	
실강+실영상반	513435	19	12	14	2	47	68	89.47%	4	
실강+실영상반	513440	19	0	16	11	46	69	90.79%	4	

온라인첨삭반	513882	14	9	7	14	44	70	92.11%	4
온라인첨삭반	513677	17	9	12	2	40	71	93.42%	5
실강+실영상반	513436	22	12	5	0	39	72	94.74%	3
온라인첨삭반	514160	19	12	3	0	34	73	96.05%	5
실강+실영상반	513802	19	0	12	0	31	74	97.37%	6
실강+실영상반	514042	9	3	7	6	25	75	98.68%	4
온라인첨삭반	513886	15	0	10	0	25	75	98.68%	4
실강+실영상반	508900	0	0	0	0	0	77	101.32%	#DIV/0!
실강+실영상반	508915	0	0	0	0	0	77	101.32%	#DIV/0!
실강+실영상반	508961	0	0	0	0	0	77	101.32%	#DIV/0!
실강+실영상반	509058	0	0	0	0	0	77	101.32%	#DIV/0!
실강+실영상반	509123	0	0	0	0	0	77	101.32%	#DIV/0!
실강+실영상반	509146	0	0	0	0	0	77	101.32%	#DIV/0!
실강+실영상반	509767	0	0	0	0	0	77	101.32%	#DIV/0!
실강+실영상반	510838	0	0	0	0	0	77	101.32%	#DIV/0!
실강+실영상반	513547	0	0	0	0	0	77	101.32%	#DIV/0!
온라인첨삭반	513774	0	0	0	0	0	77	101.32%	#DIV/0!
온라인첨삭반	513931	0	0	0	0	0	77	101.32%	#DIV/0!
온라인첨삭반	514054	0	0	0	0	0	77	101.32%	#DIV/0!
온라인첨삭반	514056	0	0	0	0	0	77	101.32%	#DIV/0!
온라인첨삭반	514107	0	0	0	0	0	77	101.32%	#DIV/0!
온라인첨삭반	514230	0	0	0	0	0	77	101.32%	#DIV/0!
온라인첨삭반	514298	0	0	0	0	0	77	101.32%	#DIV/0!

박형준/2월/도약GS/1회/1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무권리자의 모인발명에 대한 논점을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각 설문별 배점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한, 배점에 비해 너무 과하게 작성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배점에 따른 분량 조절과 시간관리에 유의해주세요.</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기본적인 문제였기에, 다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다만, 배점이 5점이기에 너무 짧게 작성하시면 안되고 어느 정도 분량은 그래도 채워주셔야 합니다. (최소 5/6 페이지 이상) 또한, 설문에 "출원인 및 발명자를 을로 기재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을'출원의 지위를 기재해주지 않으신 분이 많았습니다.</p> <p>① '을'출원의 지위와 ② 이에 대한 '갑'의 조치를 둘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을'출원이 '갑'에게 끼치는 영향을 적어주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는 것이 논리적 사고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잘 보여주는 답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또한, 배점이 6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조치별 의의/취지/요건 등을 자세히 적는 것 보다는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조치를 목차로 빼서 간결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3) 설문 3

설문 2와 달리 하자있는 특허가 설정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묻고 있으므로, 설문 2와의 차이점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지에외주장 출원을 누락하셨습니다. 또한, 정당권리자의 출원 역시 설문 2의 상황에서는 법 제 34조가 적용되는 반면에, 설문 3에서는 법 제 3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또한, 배점이 7점이므로 각각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최대한 다각적인 조치방안을 적어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4) 설문 4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배점이 6점이므로 판례의 태도에 입각하여 사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포섭해주신 답안에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5) 설문 5

① 이중양도의 유효성 및 예외 판례와 ② 출원 전 승계시 대항요건에 대하여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38조 1항의 '제3자'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적어주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해당 설문과는 다른 사안에서 적용되는 판례이지만, 아예 논점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일정부분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배점이 6점이기에 주논점을 캐치하여 강하게 적고, 이러한 부수적인 논점은 플러스 알파의 느낌으로 최대한 약하게 혹은 생략하여 적어주셔야 답안지 인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3. 소결

전반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문제였지만, 다각적 조치를 적는 답안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조치문제가 나오면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주논점 놓치지 않기, 목차 구성 깔끔하게 하기에 유의하여 대비해주세요!

<p>박형준/2월/도약GS/1회/2번</p>	<p>채점자</p>
	<p>김시연</p>
<p>1. 전반적인 총평</p> <p>설문이 2개뿐이고, 특히 설문 1의 경우 배점이 12점이기에 최소 2페이지는 적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약용도발명'이라는 특수성과 '공동발명자'여부에 관한 논점에서 힌트를 얻어 판단에 필요한 판례를 최대한 많이 적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공동발명에 대한 의의/요건/전제/판단기준에 대해 필수적으로 적어 주셔야하고, 배점이 12점임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서 문제된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p> <p>해당 설문과 관련하여, 대부분 을의 단독발명이라고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 소수의 몇 분이 '갑,을'의 공동발명이라고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p> <p>여담이지만, 저도 실제 시험 때 모범 답안과 아예 다르게 공동발명 여부를 판단하여 답안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가 괜찮았던 것으로 보아, 논리적인 흐름이 타당하다면 실제 사안과 다르게 판단을 내려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흐름이 타당하다면 결론이 달라도 일정 부분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2) 설문 2</p> <p>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이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고려요소에 대하여 둘 다 적어 주셔야 합니다. 고려요소는 많은 분들이 놓치셨습니다.</p> <p>배점이 8점이기에, 사안 포섭을 판례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해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p>3. 소결</p> <p>전반적으로 설문이 묻는 바가 간결하고, 까다롭지 않았기에 많은 분들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일수록, 해당 논점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지(즉, 많이 공부하였는지)가 답안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p> <p>설문이 간결하고 러프한 경우에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박형준/2월/도약GS/1회/3번</p>	<p>채점자</p>
	<p>강경민</p>
<p>1. 들어가며</p> <p>안녕하세요. 2월 특허 도약 gs 3,4번 채점자입니다. 1회차 3,4번 문제는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 묻는 문제였던 만큼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이런 A급 문제일수록 판례의 정확도와 사안포섭의 정교함에 따라 점수가 갈리니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점 유의하시어 자신의 답안에 차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p> <p>2. 문제 3</p> <p>(1) 설문 1</p> <p>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묻는 단문 문제였습니다. 판단 순서에 따라 답안을 다각적으로 구성한 후, 용이성 판단에 대해서도 빼먹지 않고 답안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선행 발명이 출원 발명과 기술 분야가 다른 경우 인용발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원칙과 예외로 나누고, 경우에 따라 사안포섭을 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이에 따라 잘 작성해주셔서 판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일부 감점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설문 3</p> <p>결합 발명의 진보성을 출원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성 각각이 공지된 사정만으로는 진보성 부정할 수 없다./ 결합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없다./ 결합으로 인한 특유한 과제해결원리 및 구성의 곤란성, 효과 측면에서 진보성을 인정해야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이다. 이 4가지 내용을 해당 판례와 함께 빠트리지 않고 사안포섭 해주었는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습니다.</p> <p>(4) 설문 4</p> <p>이차적 고려요소만으로 진보성 단정 불가한 점, 일차적 고려요소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점, 결론적으로 기술적 인과성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풍부하게 작성하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박형준/2월/도약GS/1회/4번	채점자
	강경민
<p>3. 문제 4</p> <p>(1) 설문 1</p> <p>신규성 상실 사유로서 4가지를 법조문과 함께 관련 판례를 다양하게 적어주신 분들에게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p>(2) 설문 2</p> <p>구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p> <p>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주논점 판례는 대부분 잘 적어주셨지만, 선결 판례로서 ‘동일성은 기술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해야하고, 구성의 동일성에 의하되 효과도 참작한다.’에 대한 판례를 빠트린 답안이 많았습니다. 실질적 동일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상기 판례들을 먼저 적어주는 것이 논리 흐름상 자연스럽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 바랍니다.</p> <p>사안포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구성 c와 c'의 차이에 대해 실질적 동일 판례문구를 활용하여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3) 설문 3</p> <p>선행기술 단일 원칙에 대한 판례, 그에 따른 결론 잘 작성해주신 경우 점수 다 부여했습니다.</p> <p>(4) 설문 4</p> <p>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에 의한 공지도 공지된 것으로 보되, 사안의 경우 발명 X의 구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신규성 상실되지 않는다는 흐름으로 답안 작성해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4. 결론

아직 2월 초반이라 그런지 판례 현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격 gs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판례 암기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아직 16페이지 답안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채점자의 수험 생활 경험상 이는 암기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문제에서 거절이유의 타당성 등에 대해 묻는 경우 반드시 타당/부당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나머지 신규 성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넘어가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내용 잘 작성해도 한순간에 답안 인상이 나빠질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해주세요!

[문제-1]

I. 설문(1)

1. 특원인 거액 (1호까지 포함)

발명을 한 자 또는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발명자족의 (1호까지 포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 귀속된다.

3. 사안

(1) 2 발명과 여부

2은 甲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원한 자로 발명자 "이시다".

(2) 2 승계인 여부

2은 甲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받았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① 2은 발명자 또는 승계인 해당하지 않아, 2특원은 "1호까지 포함" 위반의 거액이유 있거나, "등록받을 수 있다"

② 한편, 甲으로부터 등록여부 결정시 이전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 받거나, 특원인 명의 변경 신청 통해 등록받을 수 있다.

II. 설문(2)

1. 2특허특원의 2의

(1) 2의 거액

2은 모인특원한자로 "국립리자"이다.

(2) 국립리자 특원 거액



Good

- ① 특허관리사 등록원은 선원회의 인정에서 안한다. (11조 6조 1항)
- ② 그러나 공학기술의 지위 (11조 제 29조 1항 2호) 및 확대된 등록원공개시 선원의 지위 (11조 제 29조 3항 본문) 인정된다.
- ③ 다만 정당관리사 등록원 시에는 확대된 선원 지위 인정하지 안한다 (11조 29조 3항 단서)

2. 甲 통상의 등록원 개부

2등록원 공개됨바, 2등록원에 의해 신규성 상실되어 통상의 등록원 "불가하다" (11조 제 29조 1항). 이하 가능한 조치 논한다.

3. 甲 조치 1 - 공지예외특장등록원 (11조 30조 1항 2호)

甲은 2등록원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개부,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특장 수반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2등록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甲 조치 2 - 정당관리사 등록원 (11조 34조)

甲은, 2등록원 등록원이 특허관리사 등록원임을 주장하여 정보제공 (11조 6조 의 2) 및 심사청구 (11조 69조) 하여 기결결정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정당관리사 등록원을 할 수 있다.

5. 甲 조치 3 - 등록원인 명의변경

- ① 2등록원 명의변경, 특허청에 등록원인 명의변경 신청 할 수 있다.
- ② 2등록원 명의변경, 특허청에 등록원인 명의변경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판례)

II. 설문(3)



1. 2특허권의 지위

- ① 무권리자 특허로서, ② 선원지위 인정되지 않으나 (11조 36조 5항)
- ③ 실정등록원바, 공지가술 지위 가지고 (11조 제 20조 1항 2호),
- ④ 정당권리와 준원 외에는 확대된 선원지위 가진다. (11조 29조 3항 본문 및 단서)

2. 甲 통상의 준원가복

2특허로 인해 신규성 상실되어 (11조 제 20조 1항) 통상준원한수 없다. 이하 甲 조치 노한다.

3. 甲 조치 1 - 공제예외주장준원 (11조 30조 1항 2호)

2특허 준원공제 또는 실정등록일 중 빠른날로부터 (1년 이내) 2년, 의사에 반한 공제예외주장 수반 준원하여, 2특허비용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甲준원에 대해)

4. 甲 조치 2 - 정당권리사준원 (11조 35조)

- ① 甲은 무권리사 준원임을 들어 2특허 무효심판 청구한 뒤 (11조 33조),
- ② 2특허 무효심판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정당권리사 준원할 수 있다.

5. 甲 조치 3 - 특허권 이전

- ① 2가 합의되면, 특허청에 특허권 이전신청할 수 있다.
- ② 합의 못한 경우 특허법원에 특허권이전청구 (11조 40조 2) 할 수 있다.

6. 조치별 설의

- ① 공제예외주장준원은 조속기간 길고 ② 정당권리사준원은 상대적으로 조속기간 짧다. ③ 특허권 이전은 간이 신속하다.

Ⅳ. 설문(4)

1. 문제점

甲발명X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구성일부변경한 X+Y를 복원한 경우에도 모인족원으로 보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1) 발명자의 의미

1항 1조 1항의 "발명을 한 자"란 1항 2조 1호의 "발명"행위를 한 자로서, 기술적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한다.

(2) 구성일부변경하여 복원한 경우

① 과거 판례는, 모인족원과 모인대상족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해 모인족원 여부를 판단한 바 있으나,

②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발명 구성 일부변경하여 복원한 경우 그러한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에 지나지 않고,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특허리가 복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정도

발명자의 의미 및 발명 정의 규정 비추어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3. 2 발명자 여부 - 부정

① 2인 甲 발명 X에 손잡이 Y를 "단순 결합"하였으나, ② 이러한 차이는 공시기술의 결함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범정이고 ③ 그러한 결함으로 작용효과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나, ④ 기술적사상 창작에 실질적 기여 인정할 수 없어 ⑤ 발명자로 볼 수 없다.

V. 실문(5)

1. 丙, 丁, 戊 지위 검토

(1) "지상권 조항"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2) 이중양도 유효성 (판례)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양도계약 이중으로 하여도 유효하다.

② 다만 제2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본다.

(3) 사망

① 丙은 냉비구 "발명자"로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원시적 귀속된다.

② 丁은 丙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유효하게 "승계"받았다.

③ 戊는, 배임행위 가담했다는 사정 보이지 않는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유효하게 "승계"받았다.

2. 戊 출원 등록가능성 검토.

(1) "지상권 조항"

출원전 승계로 효력발생하여 출원은 대항요건이다.

(2) 결론

戊는 냉비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丁이 먼저 특허출원하였다는 사정 보이지 않는바

(끝)

[문제-2]

I. 설명(1)

1. 배경

공동발명 관련 판례태도에 따라 특허2의 행의 평가하여, 실질적 상호협력관계 유무 중심으로 공동발명 여부 판단한다.

2. 관련 법규 - 특허2조 2항

2명 이상 공동발명한 경우 특허권을 1인 있는 권리 공유한다.

3. 관련 판례 태도.

(1) 공동발명자 의미

① 발명자란 기술적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하고 ②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해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2)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기본적인 설계·아이디어 제공, ② 연구자 지시에 따른 실험 데이터 정리·보조 ③ 일반적인 연구자 행위 ④ 실험설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발명자로 인정한 경우

① 구체적인 착상의 제시, 보완, 평가, ② 구체적인 착상 ③ 구체적인 지시·조언 등을 한 경우에는 기술적사상 창작에 실질적 기여한 과로서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회색발명의 경우

이러한 실험의 대상인 회색발명은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형식적 부족하여 구체적인 실험데이터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발명으로서 보기에 족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발명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甲, 2 회에 평가

(1) 제1회

발명X는 의약용도 발명으로서 제1회 발명에 해당한다.

(2) 甲의 회에

甲은 기본아이디어 제공하고, 2의 연구개발 전반적 관여하여 실험연구를 보조하였을 뿐,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X의 기술적사상 창작에 실질적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3) 2의 회에

2은 구체적인 실험내용 특정하여 실험의뢰하여 발명X의 약리 효과를 확인하였는바,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X 기술적사상 창작에 실질적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5. 결론 - 공동발명 부정

① 2은 발명자에 해당하나 ② 甲은 발명자로 볼 수 없고 ③ 甲, 2 간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도 찾아볼 수 없는바, ④ 발명X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다".

II. 설문(2)

1. 주원인자명 (발명자명 포함)

발명자 또는 공제인만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진다.



2. 甲의 특허인 저작 판단

(1) 발명과 여백

설문(1)에서 살펴바와 같이, 발명가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2) 승계인 여백

1) 발명가 상속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이전 가능하다.

2) 묵시적 승계 가복 (판례)

~~특허~~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전부 또는 일부 지분 이전한
수 있으며 여러한 이전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사안

① 甲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가 2인에게 ^{묵시적} 승계받았다.

② 甲과 乙 사이 명시적 승계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甲이 X의 연구개발비 전액적 인가한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결과와 발명원칙을 乙 자산으로 귀속시키는데 "상당한 기여"
한 점 고려할 때, 甲이 자산을 발명가라고 주장하고 乙이 이를 받아
들어 특허권에 甲 포함시키는데에는, 甲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일부 지분 귀속시켰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록 상당하다.

④ 따라서 甲은 승계인에 해당한다.

(3) 결론

甲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인으로, 특허인 저작 발명가

가 되고 전적으로 다 장악합니다!

(끝)



[문제-3]

가: 11

I. 설문(1)

1. 진보성 의미·특징 (1점 20조항)

기술발전을 위해, 공개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2. 진보성 판단방법

① 출원발명 특성, ② 출원발명 속하는 기술분야 특성, ③ 선행 기술특성, ④ 통상의 기술자 수준 파악하여 ⑤ 출원발명과 비교하여 대비·판단한다.

3. 출원발명 특성 (판례)

출원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발명의 설명 광범하여 정한다.

4. 출원발명 기술분야 특성 (판례)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이 "이용"되는 분야를 말한다.

5. 선행 기술 특성 (판례)

①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해 선행기술을 특정해야 하고
② 선행기술 "진짜"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6. 통상의 기술자 수준 파악 (판례)

출원서를 기준으로,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해야 한다.

7. 대비판단 (통이성 판단 판례)

① 가정의 공한성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효과를 창작한다.
②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

할 수 있는지, 특허서 기술상식, 특허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때 명세서 기재 내용 알고 있음을 전제로 신속적으로 판단 해선 안된다.

II. 설문(2)

5

1. 진보성 판단시 선행발명 기술분야(판례)

(1) 원리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 이용되는 기술분야에서 선행기술로 삼아야 한다.

(2) 예외

그러나, 문제된 구성이 해당 기술분야에서만 이용되는 구성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기술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다른 기술분야에 속할지라도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2. 무작정 당부

good!

(1) 원리-당부

무엇을 선행발명이고 특허발명 기술분야 다른 경우 선행발명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무작정 "당부"하다.

(2) 예외-복합

그러나 C와 C'가 무발명 기술분야에서만 이용되는 구성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으므로 무발명 진보성 부정되어 무작정 "당부"하다.

III. 설문(3)

1

1. 결합발명 전환성 판단 법칙 (판례)

(1) 각 구성 용지된 경우

각 구성이 용지되었다는 이유로 전환성 부정해선 안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특허발명이 기록하고 있는 기술사상을 실질적으로 통괄·판단해야 한다.

(2) 선행문헌 결합 원리

① 각 구성 결합하여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양식·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②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발명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3) 표의사항

구성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의하되 필요도 인정한다.

2. 가능한 주장 경로(1) 판단대상 잘못 주장

특발명 A+B+C의 각 구성 A, B, C 용지되었다는 이유로 전환성 부정할 수 없으며, 유기적결합한 전체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선행문헌 결합 불가 주장

선행문헌에, 선행발명 1, 2, 3 결합하여 특허발명 A+B+C에 이를 수 있다는 양식·동기 제시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표의사항

특발명 A+B+C 전체로서 구성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필요도로 인하여 상충표의도도 반례표의 전환성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I. 설문(4)

1. 문제지.

미국의 경우, 상업적 성공 사실, 오랫동안 미식시던 감동은 일반 대중
요소로, 동시시대 타발명의 존재는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 성공을 전보성 판단시 고려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① 상업적 성공 기록 없거나 오랫동안 관행된 사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보성 긍정할 수 없고, ②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기술적리제를 중심으로 전보성 판단해야
하며 ③ 기술적리제 검토 후 전보성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업
적 성공 사실만으로, 전보성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검토.

상업적 성공은
전보성 판단의 기술적리제에 보충적 고려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출제원인상. (결)

[문제-4]

I. 설문(1)

1. 신규성 (1호 29조 1항)

(1) 의의·특성

특하는 공계의 대가인바 객관적 창작성 요한다.

(2) 상식사유 (1호 29조 1항 각호)



① 공중, ② 공연상, ③ 반표된 간행물에게 ④ 전기통신회선 중의
공중이용할 수 있는 경우, 신규성 상실된다.

2. 공중 이용 (판례)

반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놓인 것을 의미한다.

3. 공연상 의미 (판례)

발명의 내용이, 비자유계약 등 제한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4. 반표된 간행물에게 의미 (판례)

① '반표'란, 불특정 다수인 인식 가능한 상태 의미한다.

② '간행물'이란, 인쇄 기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의미한다.

③ '에게'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내용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을 나타낸다.

5. 전기통신회선 중 이용 (상대기준)

① '전기통신회선'은 전자적 송수신방법 의미한다.

② '공중 이용'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 의미한다.

II. 실용성

5

1. 신규성 판단시 동원성 관련 판례

(1) 동원성 의미



동일예비는.

기술상 표현지이나, 기술상 형식 이등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실체를 가지고 판단해야한다.

(2) 내재적 동일

양발명 구체적인 실시예 동일한 경우,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

+ 기술적 동일 여부 여하의
판단 필요함.

(3) 실질적 동일.

양발명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권리범용기술의 불가사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효과 발생도 없는 차이에 불과하다면 기술적 사상실체 동일하다고 본다.

동작이동!

2. 실질이유 부정검토.

(1) 원리 - 부정

$X(A+B+C)$ 와 선행발명 $Y(A+B+C')$ 는 구성 C 와 C' 차이가 있어 동일하지 않아 신규성 인정되므로 실질이유 부정하다.

(2) 예외 - 인정

OC와 C' 차이가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여 양발명 구체적인 실시예 동일하거나 ② 새로운 효과 발생 없는 차이에 불과한 경우, 기술적 사상실체 동일하여 ③ 신규성 부정되므로, 실질이유 인정하다.

good

III. 실문(3)

1. 선행기술단위원리(원리)

신규성 판단시, 선행기술단위원리발명 1개1 비교하여, 선행기술에
특수발명 구성이 모두 나와있어야한다.

2. 사항



도, 선명발명 A+B 및 C를 들어 신규성 부정행위, 선행기술 단일
유체가 반하여 "부당"하다.

IV. 설문(4)

외부촬영 사원만으로 리모컨채널 X 목3.구성.호리 대비 판권행사
없이 신규성 상실되지 않는다.

너무 간단해서
공정심리가 빨리 끝나서
승인하셔라 :)

[문제 1]

I. 문제 1. - 특허 등용이행

1. 출원인 제정 - 특허 제 33조 1항 본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 한 자 또는 중요한
승인이자이다.

2. 발명자 권리

발명을 한 자에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귀속된다.

3. 발명사권의 기재 관련 원칙

원칙은 발명자는 발명사권의 기재에 무관하게 권리를 갖는다.

4. 특허 출원인 제정 기준

(1) 발명자 여부 - 식

명도(1)는 X는 무이 발명하였으므로 발명자는 아니다.

(2) 승인인 여부 - 식

실제로 승인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승인인도 아니다.

(3) 결론 - 특허 제 33조 1항 본문 위반

본 출원인 제정이 특허 제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II. 문제 2 - 출원 출원공개시 무의 권리1. 출원인의 자기 권리(1) 출원인의 하자 권리

②의 출원료. 출원의 제각이 있어 조항 제 33조 (광복을 5번이다.

(2) 공시기술 지시 조항.

조항 제 33조 제 1항에 의거하여 공시기술의 지시(를) 가한다.

(3) 선행·후행 지시 조항.

① 출원인이 출원(을) 선행지시(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항 제 36조 5항)

② 출원금에 의거하여, 후행된 선행 지시(를) 인정한다.

정당화(사)에 대한 대항할 수 없다 (조항 제 39조 3항)

2. 출원료를 위한 무의 조항.

(1) 통상의 출원 거부.

조항 제 33조에 의거하여, 공시기술 지시(가) 있으므로, 불가능하다.

(2) 공시예외 규범 출원 거부.

1) 공시예외 규범. - 조항 제 30조. 1항 1호

제30조 제 1항 제 1호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선행의 경우.

무엇을 공시예외 규범을 선행하여, "본 이념" 출원을 할 수 있다.

(3) ~~정당화(사)~~ 정당화(사) 출원 거부

1) 정당화(사) 출원 - 조항 제 34조.

정당화(사) 출원이 개시된 후, 정당화(사)가 출원시 출원료

20%에 대한 이익제도.

2) 사안의 경우.

무엇을 정황제출 등을 통해 조항 제 34조를 개시시킨 후.

30% 이내의 정당화(사) 출원을 하여 제34조를 개시할 수 있다.

5

III. 법원 3 - 2층원. 정당등극 시 무의 해리법 방안.

1. 논쟁점.

앞 1층에서부터 마친다. 2층원은 무의해리법
사안에서는 정당등극이 되었으므로. 2층원 이후의 해리법 방안을
홍정재로 검토한다.

2. 무의 조치 ① - 정당해리사 2층원 - 1층제 35조.

(1) 정당해리사 2층원 - 1층제 35조.

무의해리사 2층원이 무의해리사 2층원 이후 30일 이내에 정당해리사
2층원 시 2층원을 상시해리사 이익제이다.

(2) 사안의 경우

① 무의 무의해리사 (1층제 133조)를 개정하여 2층원 해리사
무의해리사 수 있다.

② 이후 정당해리사 2층원을 하여 해리사를 해리사 수 있다.

3. 무의 조치 ② - 특정 이익을 신장 (1층제 99조의 1)

무의 특정 이익을 신장 조는 해리사 하여 2층원
이익을 수 있다.

4. 무의 조치 ③ - 기타 양수 등 조치.

① 무의 2층원 양수 등을 조치도 있다.

② 또한 인사상 불합조를 이유로 상해사건을 해리사 수
있다.

5. 조치의 신익.

정당해리사 2층원 및 이익을 신장 해리사 상해사건. ~~해리사~~ 조항에 상해사건.



IV. 식은 4 - 2의 $X+Y$ 변형가여부 검토.

1. 변형가 의미.

① 변형가란. 특정 제 2의 1은 기술의 향상을 한 것으로.

② 기술의 사상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

2. 모인대칭 변형을 ~~해당 기술~~ 변형해 관련된 경우 변형가 판단.

(1) 과거 변형제의 태도.

과거 변형제는 변형가를 판단할 때, 변형의 동인성을 평가하였으나.

과거 변형제를 5/10년 이내의 기술의 향상을 평가하여 변형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발생이 있을 때만 라이에 불과한 경우 변형가 아니라는 태도.

(2) 최근 변형제의 태도.

최근에는 변형가 판단시 행위 동인을 평가하며, 동인의 기술이 높으면.

제출하는 정도의 변형으로 후회 등 변형 차이가 없는 변형에서

변형가가 기술의 사상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한다.

(3) 검토.

행위 동인성 판단하는 최근 변형제의 입장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① 2의 변형은. 무의 변형인 정도/일 X 를 바탕으로 하여

② 라이의 제 2를 대부분가로 보므로

③ 동인의 기술이 높으면 제출하는 정도의 변형이 아니라는 태도.

④ 라이의 기술 사상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결론적으로 2는 $X+Y$ 의 변형가로 볼 수 없다.

V. 결론 5. - 등극가능성 검토.

1. 노정행위.

현자의 양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양도의 유효성 검토 후
결론의 개부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2. ~~행위~~ 등극을 받을 수 있는 현자 양양도의 유효성.

(1) 현자의,

양양도도. 현행 사실 자체의 현저 상 현저함으로 가늠하라.

(2) 예외 - 제정행위.

아니. 양양도의 제정행위 및 배임행위가 있는 경우.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무효라고 한다.

3. 문제별 지시 검토

(1) 2의 지시.

주변 법령은 한자로서 법령사이며 현자의 양도이다.

(2) 3의 지시.

주변 법령은 법령으로 정당한 승계인이다.

(3) 4의 지시.

① 4는. 법령으로 승계받은 자로서 정당한 승계인이며

② 현상 배임 및 제정행위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가정하라.

4. 결론

① 현재 38조 1항 - 1호는 전 통행권을 받을 수 있는 승계는 승계시

현상이 발생하여 현행으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4는 정당한 승계인으로 현행 현행인바 등이 가능하다.

[한 - 2]

I 한 (1) - 공동발명 여부 판단.

1. 공동발명 의미

하나의 발명이 대해 여러명이 공동으로 발명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허를 공유한다.

2. 공동발명의 관계

공동발명과 둘 각기 자체 그 발명의 행위를 한 자로서, 기술상
사상의 항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인 것을 말한다.

3. 공동발명의 요건

공동발명자 들은 발명의 완성을 위해 서로가 상호협력한
것을 말한다.

4. 발명자로 볼 취지

대발명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하거나 구체화 및

수단과 방법의 제공, 구체적인 조언과 지도로 발명자로 보았다.

5. 발명자가 아닌 것으로 볼 취지

대발명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실험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연가를 단순히 안내, 감독하는 경우.

자신의 명을 제공함에 그치는 경우는 발명자로 보지 않았다.

6. 특수발명의 경우

특수발명은 실험의 노력으로, 화학의 발명 가능성으로

예측하는 것이 흔하게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있을 실험을 기록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7. 사안의 범위.

(1) 발명의 성격 범위.

발명 X는 의약을 발명으로서 화학발명이다

(2) 2의 지위 검토

① 2도 기술적인 성질내용을 포함하며. 성질로 의의 인정한다.

그 약화화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발명에 해당한다.

② X의 발명자에 해당한다.

(3) 2의 지위 검토

발명이 실질적인 관여범위를 사안이 발명자로 볼 수 없다.

(3) 2의 지위 검토

① 2에게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② 약제 제형으로 인하여 도움을 준 사안이 있다.

③ 약제 제형 후에도, 2의 제형사로서, 2의 약제를 단순히
검정하였다고 한 바. 그 발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었다.

④ '제1회'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

및, 단순히 약제의 보충 및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X발명의 공동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

8. 결론

발명 X는 공동발명이 아니며, 발명자는 2이다.

9. 소문 2.

1. 출원인 작부 - 출제 33조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진 발명자 또는 승계인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각 주제를 지시 검토.

(1) Z - 발명자.

특허 1에 기재된 같이 Z는 X의 발명자이다.

(2) A - 승계인

특허 1에서와 같이 A는 Z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

(3) B

① 무슨 발명자가 아니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특허법"으로
승계인임을 알은 바 ③ 특허의 사실상 출원인이 인정되도록 하였다.

3. 특허 출원인 지분이란 여부 검토

(1) 특허 출원인 지분 - 제1항.

대부분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 알았 또는 알지 못하
지 않았을 수 있는 바 (특허법 제1항) 이 제1항은 발명자 뿐만 아니라
출원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2) 특허 출원 - 제1항.

발명자의 역할과 기여도, 출원의 범위, 발명자-출원인의 관계 등
제1항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4. 사안의 경우

무엇을 A와 B의 발명에 큰 기여를 하였다. 발명자는 아니지만
발명에 상당한 도움을 하였으며 무의 의사를 받아들여 A는
무엇을 출원인에 포함시켜 주었다. 이 사건 종합적으로 볼 때
A는 출원인으로 지분이 인정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 섹션 1. 8 [문제 - 3].

가: 6

1. 진보성 의미. - 특허 제29조 2항.

산업발전 및 기술발전 촉진에 의해 공익의 증진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진보성 평가 방법

① ~~발명~~ 산업발명들을 향상한다. ② ~~기술수준~~ ^{출원 당시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 및 동상의
기술자 수준 파악한 뒤 ③ 출원 발명을 향상하여 ④ 대비된다

3. 산업발명 평가

(1) 산업발명 기술 분야

산업발명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한다.

(2) 기술 향상.

동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발명 기술을 향상하여 파악한다.

4. 출원 당시 기술수준 및 동상의 기술자 수준 향상

(1) 출원 당시 기술수준

해당 출원시를 기준으로 동상의 기술자가 파악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동상의 기술자 수준

당해 기술분야의 보통의 이해자로 가진 자로서 평균 기술자.

5. 출원발명 향상

(1) 향상한 기술. - 향상된.

향상한 기술이 기존 발명으로 발명에서 기술을 향상한다.

(2) 다만. 제반 사항하여 해명해 상 안되다라고 하였다.

6. 대비판단 방법



(1) 용이성 판단.

출원 발명나 선행기술을 파악한 뒤 양 발명의 본질적 차이점을 파악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

(2) 효과 고려 문제.

용이성 판단시 기술의 효과성도 고려하여. 효과를 창작한다.

효과가 현저한 경우 기술의 효과성을 구분하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3) 이차적 신의조소 및 사후에 관한 문제.

① 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상용성 상용 사례나. 수출 수입 등.

다른 이차적인 고려요소를 창작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항만으로 바로 진보성을 인정하여서는 안되며.

여러 사항을 창작해 판단해야 한다.

② 효과. 발명-1 이/가 타발명/기술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발명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II 실용성 - 기술분야 내의 사안. ④1. 본질적 차이.

선행기술의 기술분야가 다른 경우 진보성 판단 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외적 경우는 있는지 검토한다.

2. 기술분야 다른 경우 - 원칙적 부정.

원칙적으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가 출원 발명나 다른 경우도. 원칙적으로 진보성 판단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예외적 가능한 경우. - 원칙적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 범용과 기술분야가 같아도 해당 기술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당해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특허로 하거나 하는 범용이 클수록 순차적으로 해결이 범용되어 실시할 수 있다. 선행기술로 범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4. 사안의 경우.

- ① 선행범용 1과 출원범용이 기술분야가 같아도 적용될 범용하여 순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② C'와 C 사이에 용이성이 인정된다면 전보성이 부활 가능하다.
- ③ 따라서 무디 국장은 전보성으로 인정되었지만 / 종래한 사형이 있는 범위로 인정 없다. /

II. 원문 3 - 기술이유 통시 대응 조치.

(B)

1. 논쟁 정리.

X 범용은 구성 A, B, C가 결합된 결합 범용이므로, 각각 구성에 대한 전보성 인정에 있어, 선행범용을 중심으로 하여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다.

2. 대응 조치 ① - 선행범용 전체 관련.

X 범용은 각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기술사상이 발견되자는 전보성이므로, 기술사상이 발견되었다는 사형 반으로 전보성 부활 수 가능 한 것 이다

3. 대응 조치 ② - 선행기술 기술분야 순서.

각 구성 A, B, C는 결합 범용이 A+B+C의 기술분야 다고, 통상의 기술자가 구체적 범용 해결 수 없 는



것이라고 하여 지출에 관한 주장에 대응할 수 없다.

4. 대응 권리 ③ - 선행 권리 보충요구 불응

(1) 선행권보충요구 - 취지

각 선행권자를 대상으로 선행권보충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특정 순위에 규정에 대한 만거나 증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시, 발원일, 기술상식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한정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 사안의 경우

선행권자 A, B, C를 대상으로 만거나 증가가 선행권자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술상식등을 통해서도 쉽게 보충할 수 없이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5. 대응 권리 ④ - 상징물 등 주장

해당 순위에 대해 각 개체가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충요구 변환 새로운 모타-발생물 등 현상만 보충

등을 상징물의 존재를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다.

6. 대응 권리 ⑤ - 사후개입 관련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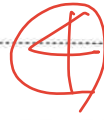
각 선행권자가 있다. 후발권자가 선행권자에 대해

사후개입 관련 권리를 주장한다.

해당 후발권자가 선행권자에 대해 기술상식을 이용하여 기술상식을

으로 파생하여 기술상식을 기술상식으로 기술상식 관련 권리

주장할 수 있다.

IV 실문 4. - 상업적 성공과 정보성1. 상업적 성공 관련 문제

① 상업적으로 해당 발명이 성공한 사업 등은 정보성 판단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상업적 요소가 될 수 있다.

② 다만, 그러한 사업 한으로 정보성을 인정한다고 판정하여서는 안된다.

2. 정보성 판단의 기준(1) 기술, 목적, 효과를 통한 고려

정보성은 산업발견을 위하여 공시기술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공시로 하는 바, 그 고려는 발명이 기본요소인 기술과 목적 및 그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이차적 고려요소

다만, 일차적으로 기술, 목적, 효과로 판단된 후, 이차적 고려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이를 일차적 고려요소보다 우선 순위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의 순서성

따라서 상업적 성공 등은, 상업적 요소가 될 수 없지만, 그것만을 전제로 기술이나 목적, 효과를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음에도 정보성을 인정하여서는 안된 것이다.

3. 결론

① 상업적 성공은 상업적 요소

② 일차적 고려요소보다 우선순위로 판단은 불가



[문제 - 4]

I. 문제 1. - 신기술 상실 사유

(5)

1. 신기술 - 도출 제 2항 2항 참조.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공시된 기술이 아님 것을 의미한다.

2. 신기술 상실 사유 ① - 공시.

① 공중에 행된 행위는 신기술이 부존된다.

② 공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돌린 것을 말한다.

3. 신기술 상실 사유 ② - 공언상시.

① 공중에 종언히 실시된 행위는 신기술이 부존된다.

②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③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행위를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

4. 신기술 상실 사유 ③ -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반포되는 것을 말한다.

② 문서·도면·사진 등의 간행물을 만들어.

③ 앞의 문항에 있거나 이항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나 또 통상의 기술자가 정보의 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범위에서는 공시된 것으로 본다.

5. 신기술 상실 사유 ④ - 전(통신)비선로 통신 공시

① 인터넷이나 전자책 매체를 통해 공시된 것을 말한다.

② 매체나 통신의 선택으로 인해 해당 공시 사유가
는 작용을 차지할 수 있다.③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행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공시된 것으로 본다.

II. 질문 2. - 거절이유 통지의 양식.

1. 본질적 차이

신기술 판단시의 동일성 판단 방식에 기술하여 C'과 C가 어느 관례에 속하지 판례하고. 그에 따른 거절이유 양식을 검토한다.

2. 신기술에서의 동일성 판단

(1) 문언적 동일. - 해당 0.

문언상 거의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2) 내재적 동일. - 해당 0

본질의 신기술에 모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3) 실질적 동일. - Δ

① 형식의 동일성. 구체적사항을 가진 구체적 수단에서 $\frac{구체적용어}{구체적용어}$ 의 부가·삭제 변형등을 한 것으로서. 새로운 효과가 없는 정도의 형태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형식의 동일성. 동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형태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신기술의 동일성은 형식의 동일 방식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3. 사안의 경우

(1) C'으로 인해 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는 경우

형식의 동일 이내의 본질의 변형으로서 신기술이 인정된다.

(2) C'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도록 변형된 경우

형식의 동일이라고 한 후 있으므로 신기술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거절이유가 없다.

II 문제 3. ①

1. 특허법 제 29조의 규정에

"선행기술이란 원상"

특허법은 $A+B+C$ 이다

2. 공시 선행기술

특허법은 $A+B$ 과 C 이므로 전항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3. 사안의 경우

(1) C의 부가 효과 1 가지

C의 부가 효과 $A+B$ 자체가 다체배로 5만 개 이상

특허법 제 29조의 부가 효과 1 가지가 있다면 선행기술이 인정되고

거부 사유는 없다.

(2) C의 부가 효과 2 가지

특허법 제 29조의 부가 효과 2 가지가 있다면 선행기술이 인정되고

거부 사유는 없다.

II 문제 4. ②

1. 공시의 판단 기준

공시에 대해서 특허법 제 29조의 규정에

특허된 경우를 인정하고 하였다.

2. C의 부가 효과

특허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에 게재함

3. 공시여부 판단

특허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에 게재함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 }



4. 결론

따라서 최종 ~~결과~~ 1항 2단의 ~~중~~ ~~의미~~ 5/6으로 의미.
상항이 상신되나

— 21 —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